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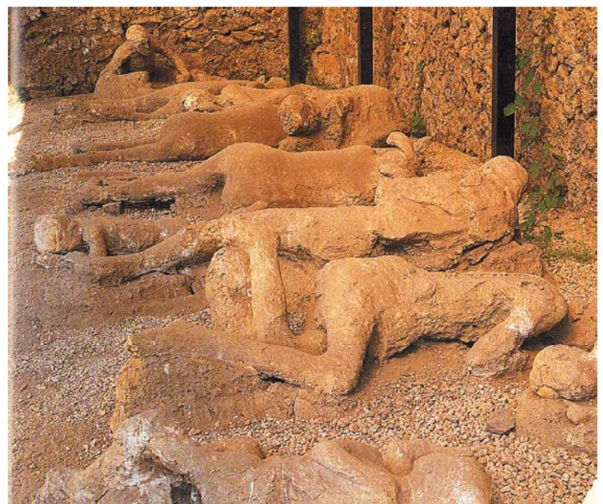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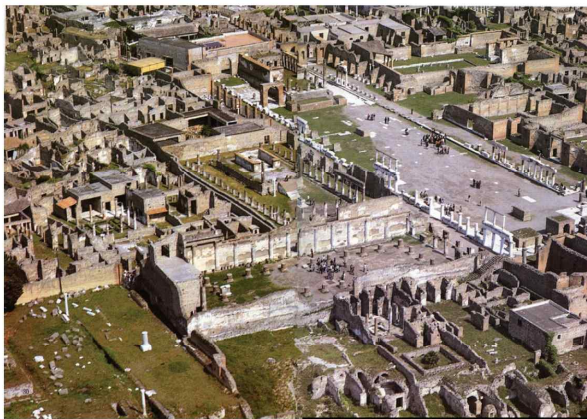
박제된 고대 로마도시 폼페이의 역사와 문화

김경현 (고려대학교 사학과 명예교수)

* 폼페이 유적



* 이탈리아 서남부 연안, 나폴리 근방의 고대 로마 도시의 폐허로
서기 1세기 인근 베수비우스 화산의 폭발로 매몰되어 화석화됨



* 폼페이가 연상케 하는 것들:

① 최근에 국내에 소개된 책들과 영화

- 19세기 베스트 셀러 <폼페이 최후의 날, 1834>
- 영화 <폼페이, 2014>
- 21세기 신작 소설 <폼페이, 2003>



② 이탈리아 나폴리 만 근방의 관광지

③ 베수비우스 화산폭발로 매몰: 죽음과 재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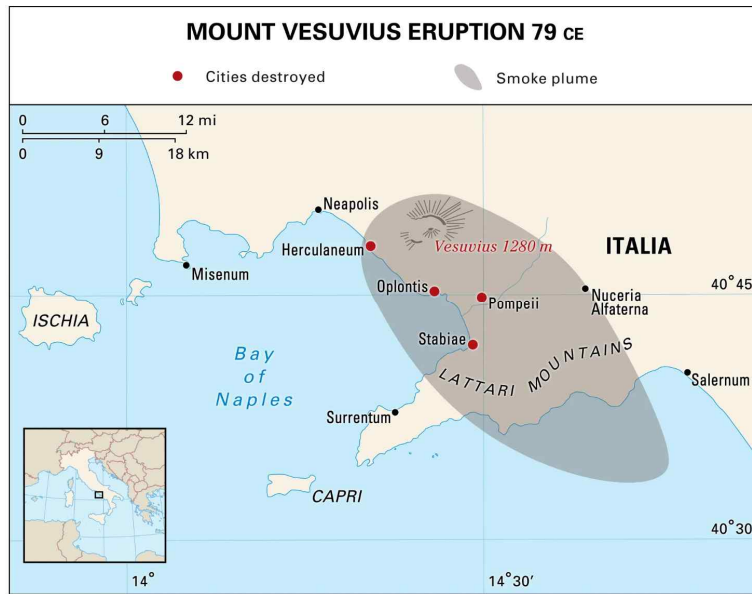
- 대재난의 생생한 증인으로서 석고 유해들
- 2천년 만에 되살아난 도시: 세계 유일의 사례

[1] 재난과 복원의 역사

A. 베수비우스 화산의 대폭발: 서기 79년

캄파니아의 오랜 화산지대의 일부

- ① 지명: '불타는 평원' (Campus Phlegrae)
- ② 화산재 덕에 비옥한 포도산지: '예수의 눈물'이라는 포도주
- ③ 유명 온천지대: Baiae (Nero황제가 모친을 살해)
- ④ 그리스 신화에 지하세계로 통하는 입구: Cumae



B. 서기 79년, 2000년 만에 새로운 활동주기 시작

- ① 조짐: 서기 62년의 대지진
- ② 서기 79년 8월 24일 대폭발
 - 대폭발 직전의 베수비우스 산의 모습
 - 주요 재난지역: 폼페이, 헤르쿨라네움, 스타비아 등
 - * 폼페이와 헤르쿨라네움의 차이
 - 재난의 산 증인: 로마 지식인 Plinius

플리니우스의 회상 (서기 107년)

삼촌은 그 무렵 미세눔 기지의 함대사령관이었다. 8월 24일 이른 오후 즈음, 어머니가 내게 베수비우스 산 위에 엄청난 크기의 구름이 솟아 오른다고 알려 주셨다. 마침 수영과 일광욕을 즐기던 삼촌은, 신발을 달라시더니 좀 더 그 현상을 잘 볼 수 있는 높은 곳을 찾아가셨다. 구름은 우산 형 소나무처럼, 줄기가 높이 뻗은 다음 옆으로 퍼진 모양이었다. 아래에서 솟구치는 바람 때문에 계속 높아지던 구름은 마침내 제 무게를 이기지 못한 듯 주저앉기 시작해 널리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흙과 재를 품은 정도에 따라 때로는 흰 색을 때로는 어두운 빛을 띠곤 했다...

학식이 뛰어난 삼촌은 그 현상을 더 잘 살펴야 한다면서, 쾌속 함선을 준비시켰다. 내게도 동행하자 하셨지만, 나는 공부를 핑계로 따라 나서지 않았다. 바다로 나간 삼촌의 배의 갑판에는 이미 재와 쇠석이 범벅이 되어 떨어지기 시작했다...배를 되돌릴까 했지만, 친구 분을 구조할 겸 용기를 내어 스타비아이 항구 쪽으로 향했다. 탐구자에서 영웅이 되는 쪽으로 생각을 바꾸셨던 셈이다. 항구 부두에서 갈팡질팡하던 친구 분을 만나서, 공포에 휩싸인 그 분을 달래 그 분 댁으로 돌아왔다. 씻고 식사를 한 뒤, 잠자리에 들었지만, 차츰 호흡이 곤란해졌다. 창 밖을 내다보니, 정원에는 이미 집을 파묻을만큼 재와 돌덩이가 가득했다...삼촌은 친구 분 가족과 상의 끝에 집을 떠나기로 했다. 모두 베개 한개씩 머리에 쓰고 뛰쳐나갔지만, 아직 해가 길게 남을 시간임에도 사방은 질퍽 같이 캄캄했다. 노예들에 의지해, 바다 쪽으로 나가보았지만 파도가 너무 높고 거세 위험했다. 삼촌은 해변에 천을 깔고 누워 찬물을 몇 모금 들이키더니 이내 실신하고 말았다...

③ 활화산 베수비우스

- 79년 이후 1944년까지 50여 차례 폭발
- * 1834년 8월 27~29일의 대폭발

C. 폼페이 발굴과 복원의 역사

① 18세기에 발굴 본격화

- 나폴리 왕실의 후원
- 나폴리 박물관 수장품 수집이 주요목적

② 1860년대 이탈리아 통일 이후부터 체계적 발굴

- 나폴리 박물관장 주세페 피오렐리
- 폼페이 시 발굴용 지적도 작성
- 재난 피해자들 유해의 석고 복원법 창안

③ 폼페이 유적지와 나폴리 국립고고학 박물관

- 폼페이 관광객 연간 약 300만
- 나폴리 박물관 폼페이 유물의 해외 나들이

[2] 폼페이의 역사

A. 로마 지배 이전

- ① 토착인의 항쟁: 산악 종족 Samnites인
- ② 그리스 문화의 영향: 인근 나폴리는 그리스 도시!
- ③ Sarno 강변과 나폴리 만의 농어업 기반 소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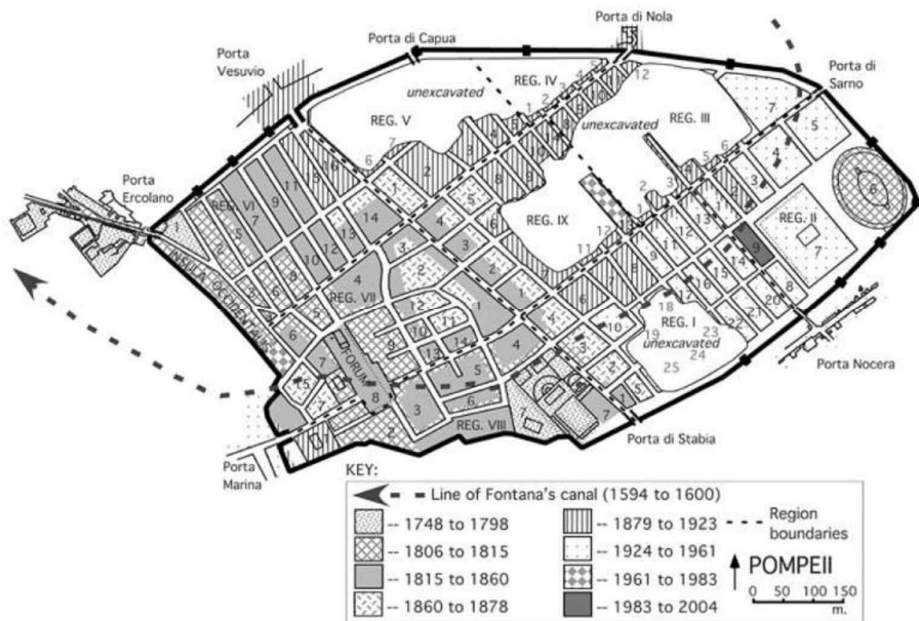
B. 로마 정복 이후 (기원전 80년부터 서기 79년까지)

- ① 처음에 로마군대 주둔하는 군사도시
- ② 서기 1세기 초부터 비약적 발전: 그 계기들
 - 캄파니아 해안이 로마 엘리트의 휴양지로 선호됨
 - 재력가 루쿨루스의 나폴리 별장의 장어 양어장
 - 황제들의 별장:
 - 티베리우스의 카프리 별궁
 - 칼리굴라의 바이아이 배다리 공사
 - 네로의 나폴리 처녀 공연
 -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 개발정책
 - 이탈리아 서부 함대기지 Misenum
 - 푸테올리 (현재의 포쭈올리)가 국제무역항으로
 - 나폴리 만 지역 도시들을 위한 상수도 건설
- ③ 전형적 로마적 도시로 변모: 번창하던 휴양도시
 - 외지인 (군인가족, 선원, 상인)의 비중이 높은 곳
 - 나폴리 만 연안 지역의 오락 문화 거점
 - 폼페이에 만연한 향락생활의 증거들
 - * 소설 <폼페이 최후의 날>의 기본 가정

[3] 폼페이의 도시 기반: 성벽과 성문, 도로와 상수도

A. 요새 같은 로마 형 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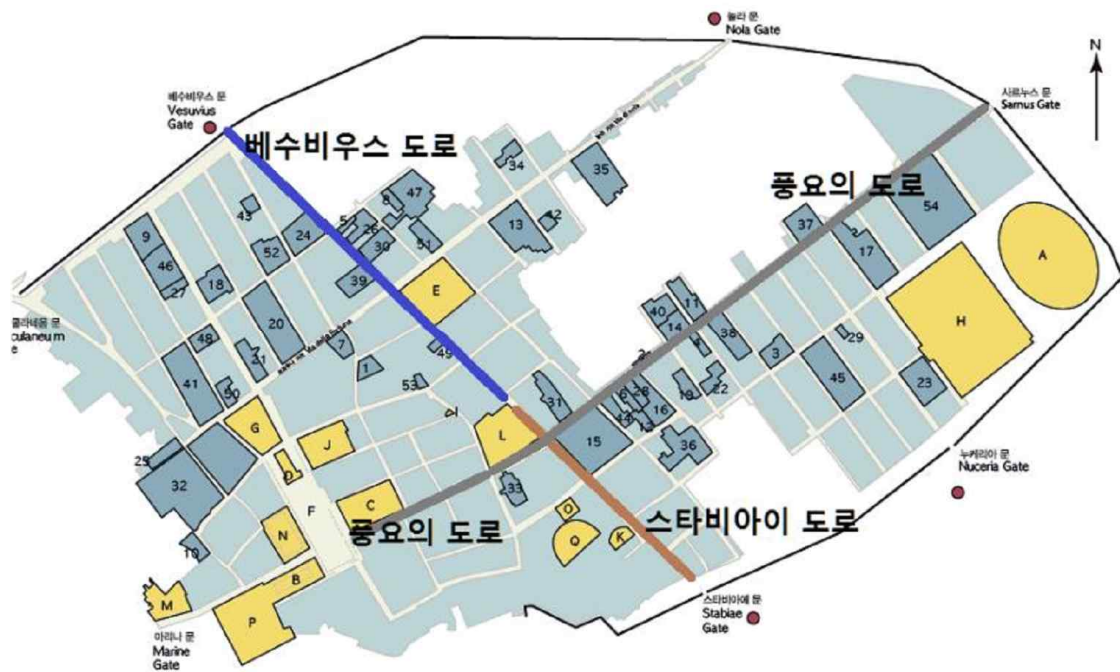
- ① 내륙에서 해안 쪽 (동남쪽)으로 경사진 입지
 - * 최고 지대 해발 42미터, 최저지대 해발 8미터
- ② 성벽, 7개 성문과 12개 탑



B. 도로망

① 주요 도로: 두 개의 중심축

- 베수비우스 가도 ⇔ 스타비아이 가도
- 풍요의 가도



② 도로 관리

- 통행제한: 우마차 통행제한 구역, 일방통행로
- 도로 위 징검돌들의 의미

③ 상수도 시설

- 아우구스타 상수도 (Aqua Augusta)
- 폼페이 고지대의 저수조 (Castellum)
 - * 3개관으로 배급: 공동수도, 공동목욕탕, 개인용
- 시내 급수탑 11개와 교차로의 공동수도 40여개
 - * 급수탑 높이 3~6미터; 1~3개의 배관설치 홈
- 시 내외에 공중목욕탕 증가
- 특권층 (주민 10%)의 수도 시설: 분수와 정원
- 하수 처리 시설은 없었다!

*** 폼페이의 도시 생활환경의 참고자료: <유베날리스의 풍자시>

그 밖에도 야간에 일어나는 온갖 위험을 생각해보라!
높은 지붕에서 기와가 떨어져 대가리를 후려칠지 모르지.
물새서 못쓰게 된 그릇을 창밖으로 내던질지도 모른다네.
땅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나는 장면, 그로 인해 도로에
가해질 파손은 또 어떤가!

유언장을 미리 써놓지 않고 저녁을 먹으러 나간다면, 재난을 자초한 자
라는 비난을 받아 마땅할 것이겠지?

밤에 당신이 지나는 도로변의 주택 위층의 여닫이 창 하나하나가 당신
을 죽음으로 내모는 듯이 될지도 모르네.

그러니 불쌍한 그대여! 위층 주부가 버린 요강의 배설물 보다 심한 어
떤 무엇도 당신의 머리 위에 떨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할
것이라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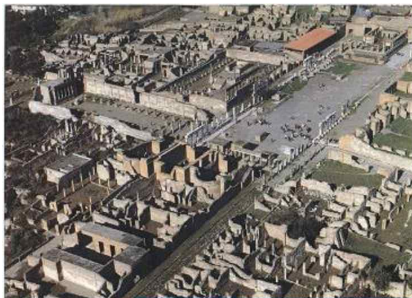
[4] 폼페이의 공동생활 터전: 급속한 로마화의 흔적 확인!

A. 포룸

① 로마 시를 모델로 한 도시계획의 산물

- 장마당, 공동집회, 휴게소로서 포룸
- 로마 지배 후 도시 중심의 이동

삼각형 포룸 → 포룸



수도 로마 시의 광장 (포로 로마노)

② 포룸의 주요 시설: 로마지배의 상징과 지자체

- 유피테르 신전
- 황제숭배 신전
- 시장, 시의회 의원의 집무실
- 측량소, 시장
- 열주식 건물 (바실리카)

B. 공중목욕탕 (로마화의 증거)

① 목욕은 로마인 일상생활의 핵심

- 건강, 체력단련
- 휴식과 오락
- 사교의 공간

② 목욕탕의 구조

- 욕장: 탈의실, 냉탕, 온탕, 열탕 (간혹 한증실)
- 남녀 구획, 은밀한 개인욕장
- 수영장, 단련장, 도서실, 산책로, 식당
- 화장실

③ 폼페이와 공중목욕탕

- 로마 지배 이전에는 공중목욕탕 단 1개
- 매몰되기 전까지 공설 네 개, 사설 5개
- 소액의 입장료!

C. 원형경기장 (로마 오락문화의 진수!)

① 로마 제국에서 가장 오래된 석조 원형경기장

- 기원전 70년대에 시 외곽에 위치
- 수용인원 2만 명

② 캄파니아 지역에서 굴지의 경기시설

- 스파르타쿠스 반란 시발점이던 Capua의 경기시설과 쌍벽
- 나폴리 만 인근지역을 담당

D. 로마식 극장 두 곳



[5] 폼페이의 상업 및 서비스업 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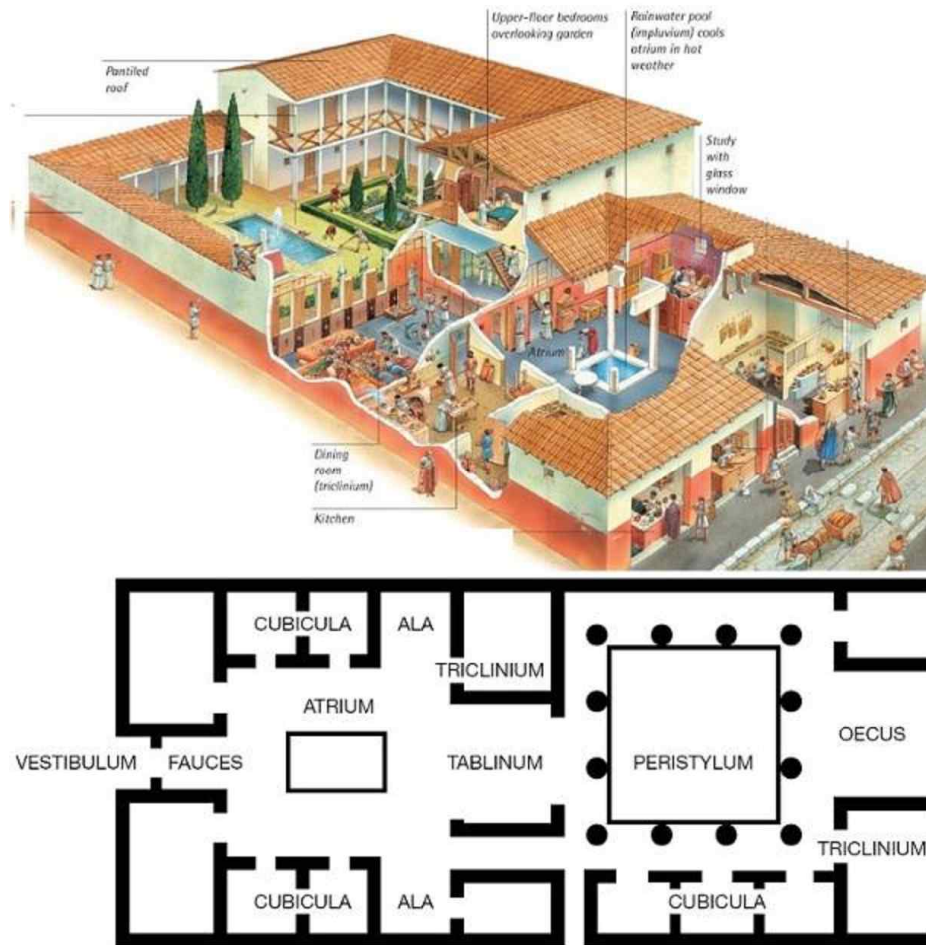
A. 도심, 그리고 간선도로 변에 위치

- ① 주택의 약 40%가 점포 혹은 공방을 겸함!
 - 도로에 연한 방 하나는 점포 혹은 공방, 그 뒤 쪽 혹은 반 이층은 주거용: taberna
 - 오늘날 이탈리아에서 타베르나는 간이식당!
- ② 주요 업종은 소규모 제조업 혹은 서비스업
 - 제분소 겸한 빵가게
 - 방직공장 겸한 포목점
 - 젓갈 가게
 - 간이식당 (식당과 술집을 겸함)
 - 여인숙과 호텔
 - 매춘업소(Lupanar)와 19금 그림과 유물들
 - * 폼페이 시의 약 절반 정도가 19금과 연관!
 - * 나폴리 박물관의 특별 전시실 (Secret Cabint)!
- ③ 폼페이의 낙서들: 선거유세, 경기홍보, 외설 등등

[6] 폼페이의 일반주택

A. 로마의 전형적 주택구조

- ① atrium, tablinum, triclinium, hortus
 - 현관에 해당하는 아트트리움
 - 응접실 겸한 서재 (tablinum)
 - 향연장이자 식당으로서 triclinium
 - 뒤뜰 (정원): 분수와 열주가 있는 정원



② 가옥구조와 로마식 사회관계의 연관

- 유력자에 대한 추종자들의 문안인사(salutatio)
- 가문의 전통과 위세의 과시
아트리움과 정원에 가족사당, 조상의 조각들
- 주인의 재력과시
특히 정원 장식의 중요성
실내벽화 (프레스코)와 바닥 모자이크

B. 폼페이 회화의 미술사적 의의

① 회화는 폼페이 외 지역에서 출토된 것이 희소

- 폼페이 회화가 로마미술사의 중요한 자료
- 독일 고고학자 August Mau가 네 단계로 분류
- 그러나 화공들은 이탈리아 전역이 아니라 단지 지역에서 활동하던 사람들

② 회화의 주요 소재들

- 그리스 신화
- 원근감을 주는 풍경
- 실내 건축 구조물이나 장식의 모방
- 정원 그림 (동식물)
- 정물화

C. 폼페이의 유명한 주택들 (Casa 혹은 Villa)의 명명법

① 주인의 이름을 아는 경우

- House of Vetti
- House of Salust
- House of Julia Felix

② 출토 벽화의 주제

- House of Menander
- House of Tragic Poet
- Villa of the Mysteries

③ 출토 유물의 명칭

- House of Faun
- House of Gold Bracelet

[7] 폼페이의 정신문화: 신화와 종교

A. 공식 종교 (도시 차원)

① 포룸의 주요 신전들의 숭배대상

- 유피테르, 유노, 미네르바: 로마 국가신들
- 신격화된 황제들
- 격하된 토착 수호신들: 아폴로

② 공식 제사와 축제

- 희생동물의 유허, 분향, 헌주로 이루어지는 제사
- 제사 후 향연과 기념제 (연극제, 스포츠 경기)

B. 민간 신앙 (가족 혹은 개인 차원)

① 가족 사당(lararium)

- lares는 조상신
- 주인 혹은 가족의 수호정령 genius
- 지신 혹은 터주 대감 (좋은 뱀으로 형상)

② 밀교 (비밀스런 종교 mysteries)

- Bacchus (그리스 식 명칭은 디오니소스) 밀교 House of the Mysteries의 벽화 Sabazius 숭배의 상징물 (뱀이 감싸고 있는 손)
- 비밀스런 의식을 통해 가입하면, 복된 내세 혹은 재생을 이룰 수 있다는 믿음

* 특별전의 회화 조각들 중 바쿠스 관련 다수!!!

③ Isis 숭배의 성공

- 로마 정부가 일찍이 공인하여 제국 전역에 널리 보급된 이집트 기원의 숭배
- 생명 (재생)의 원천, 안전, 행운의 보증자로서 Isis 신: 선원, 상인, 하층민, 여성 등에 매력
- 로마 제국 도처에 이시스 신전이 분포
 - * 로마의 이시스 신전
 - * 폼페이의 이시스 신전

C. 그리스 신화의 종교적 의의

① 신화에 나오는 그리스 신들의 대부분은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 오랜 그리스 문화의 영향의 흔적
일 뿐

② 그들은 회화와 조각의 제작 때 인기 있는 소재

- * 특별전의 전시품 가운데 신상들은 신앙보다 문예활동의 소재로서 의미가 더 큰 것!!!

**** 수강자들을 위한 조언

폼페이를 방문하시거든, 반드시 인근 나폴리 시 소재의 국립고고학
박물관 관람을 잊지마세요!